

울산지역 에너지 발굴사업 “탄력”

2007년까지 특화사업 추진 ... 바이오가스 및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

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너지 발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.

울산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은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(책임연구원 류봉기 교수)는 2월1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시·구·군 공무원과 에너지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에너지 특화 사업을 제시했다.

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는 지역에너지 특화 사업 추진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파력발전, 해수열 온도차 발전, 심층수 에너지 자원화 사업 등을 핵심 추진사업으로 하고 풍력, 태양광 및 태양열 에너지 보급사업을 시범 추진사업으로 내놓았다.

또 리사이클 에너지 분야에서는 핵심 사업으로 공업단지 폐열이용 최적화 방안, 바이오가스 및 폐타이어 소각 열에너지 이용사업을, 시범사업으로 플라즈마 등 고에너지원을 활용한 폐기물 연료제조 등의 사업을 각각 제시했다.

신에너지 분야에서는 핵심 사업으로는 열병합 발전시스템(연료전지 포함), CEV 산업을, 시범사업으로는 일반가정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개발·보급 사업 등이 제시됐다.

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1단계(2003-2004년)는 도입단계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기반구축 및 정착으로, 2단계(2005-2006년) 도약단계로 지역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들었다. 또 3단계(2007년 이후)는 성숙단계로 독자적인 지역에너지 사업 수행 및 에너지수급 기술보급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.

한편,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해 시·도에서 매 5년마다 수립·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추진된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2/18>